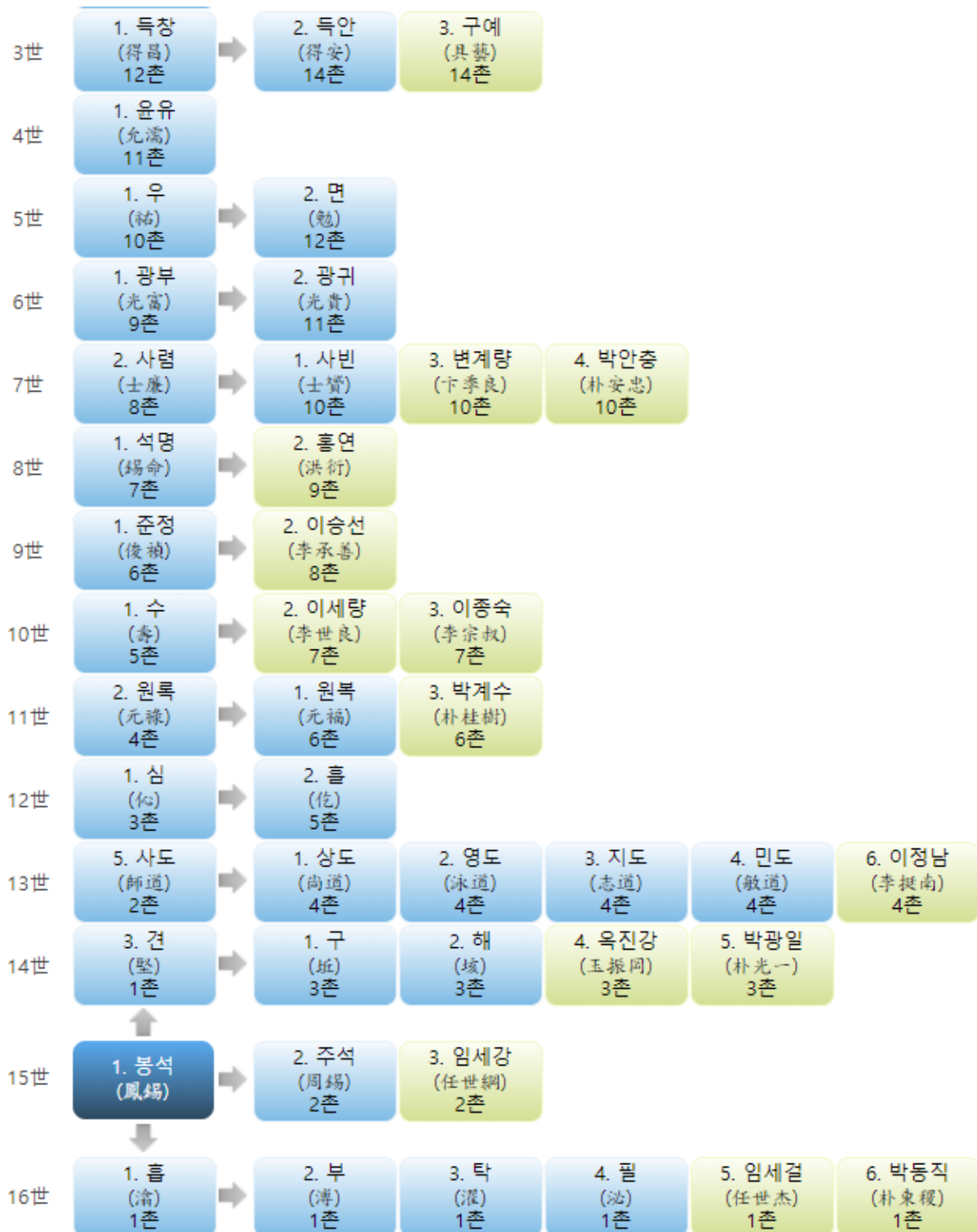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신봉석(申鳳錫)

15世 봉석(鳳錫)

父 : 건(堅) 祖父 : 사도(師道)

읍파(邑派)화곡공파(華谷公派)



신봉석(申鳳錫)

항목 ID	GC05200917
한자	申鳳錫
이칭/별칭	자족재(自足齋), 석여(錫予)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31년 - 신봉석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55년 - 신봉석 성균관에 입학
활동 시기/일시	1655년 - 신봉석 응제시에 장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7년 - 신봉석 한성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7년 - 신봉석 성시에 낙방
활동 시기/일시	1677년 - 신봉석 「진오폐소」 올림
몰년 시기/일시	1704년 - 신봉석 사망
거주 이주지	신봉석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묘소 단소	신봉석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의곡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경력	선교랑(宣敎郎)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석형(錫亨). 호는 자족재(自足齋).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신견(申堅), 어머니는 신호성(申孝誠)의 딸인 평산 신씨(平山 申氏), 할아버지는 신사도(申師道), 증조할아버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역임한 신심(申心), 부인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경

(金鏡)의 딸 의인(宜人) 안동 김씨(安東 金氏)이다.

[활동 사항]

신봉석(申鳳錫)[1631~1704]은 1631년(인조 9)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덕과 총명을 보여주어,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전한다. 7세 때 신봉석이 '학서(學書)'를 청하였는데, 몸이 유약하다며 부친이 허락하지 않았다. 13세 때에는 부친이 통발 속의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자, 신봉석은 단지 잉어 한 마리만 가지고 왔다. 부친이 그 까닭을 꾸짖어 묻자 신봉석은 "차마 모두 잡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신봉석은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해지는데, 부친의 병환 때에는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아오고 상분(嘗糞)하며 간병하였다. 또한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했는데, 모친이 20리 밖에 떨어져 계셨기에 매일 곡을 하면서도 가서 살피기를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몸가짐도 단정하여 의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없었다고 하며, 부모 제사 때가 아니면 함부로 돼지와 닭을 도살하지 않았다.

신봉석은 부친의 계(階)로 인해 선교랑(宣敎郎)에 통적(通籍)되었으며, 일찍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1655년(효종 6) 어느 날 성균관의 모든 유생이 삼청동(三淸洞)에 놀러 갔지만, 오직 신봉석과 호남의 한 유생만이 성균관을 지키고 공부하고 있었다. 이때 효종이 불시에 성균관에 내시를 보내어 두 유생에게 친히 시제를 내려 글을 짓게 하니, 둘 중 장원은 신봉석이 차지하였다. 이에 효종은 신봉석에게 집을 내리려 했지만, 대간(臺諫)들의 반대로 종이·붓·먹만 상으로 내렸다. 1657년(효종 8) 한성시(漢城試)에는 급제하였으나, 성시(省試)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낙향하여 더 이상 과거에 뜻을 두지 않으며, 스스로 '자족재(自足齋)'라는 호를 짓고 편액(扁額) 한 뒤 학문 연구에 주력하였다.

고향에 있으면서도 국사에 대해서는 매우 강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677년(숙종 5) 「진오폐소(陳五弊疏)」를 올렸는데, 이는 당시의 폐단을 5개조로 나누어 지적한 것으로, 그 첫째가 세금 징수의 폐단, 둘째가 군역의 폐단, 셋째가 가난한 백성이 더 가난해지는 폐단, 넷째가 영남의 인재를 쓰지 않는 폐단, 다섯째가 인재 등용의 폐단이다. 이어 신봉석은 「의청영남행경대동소(擬請嶺南行京大同疏)」라는 상소를 올려, 대동법(大同法)의 영남 지역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거처를 지금의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로 옮겼으며, 초택(草澤)에서 머물다 1704년(숙종 30)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신봉석의 문집으로는 3권 1책의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이 전한다. 이 책은 신봉석의 8세손 신용섭(申龍燮)이 편찬하였으며, 1921년경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2에 신봉석이 올렸던 두 편의 상소문인 「진오폐소」와 「의청영남행경대동소」, 그리고 「자족설(自足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신봉석은 「자족설」에서 "자족의 도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에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도 금하는 것이 없고, 그것을 써도 다하지 않는다."라며 자족의

의미와 자신의 신념을 풀이해 놓았다.

[묘소]

『자족재집(自足齋集)』 묘갈명에는 현의 서쪽에 위치한 의곡(蟻谷)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이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신봉석의 학문과 효행을 기리기 위한 재사인 자족재(自足齋)가 건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유교넷(<http://www.ugyo.net/>)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서지정보

원서명	自足齋遺集						
현대어서명	자족재유집						
청구기호	古 3428-790						
편저자(한자)	申鳳錫(朝鮮) 著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3 卷 1 冊
편저자(한글)	신봉석(조선) 著	간행연도	[1919 年]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9×20cm
匡郭			版心			표기문자	
表紙, 版心, 卷頭書名							
序, 跋, 卷首, 卷末	序: 重光作噩[辛酉(1801)]... 洪承穆, 吳明根, 跋: 崇禎紀元後三壬戌(1802)... 申立仁, 府君下世後二百三十二年己未(1919)... 申龍燮, 己未(1919)... 甲燾						
表題紙, 內題紙			附				
藏書記, 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95-E						

문집해설

서명	自足齋遺集	저자	申鳳錫 著
현대어서명	자족재유집	간행년대	1919 년 이후.
청구기호	古 3428-790		
책수	3 권 1 책	판본	사이즈 29×20 cm.

해제

1631년(인조 9)~1704년(숙종 30).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석여(錫予)이고, 호는 자족재(自足齋)이다.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경상북도 의성현(義城縣) 출신이다.

증조부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신심(申僖)이고, 조부는 신사도(申師道)이며, 부친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견자(申堅資)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덕을 지녔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1655년(효종 6) 응제시(應製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효종에게 지필묵(紙筆墨)을 받았다.

저서로 시문집인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이 있다.

17세기 학자 申鳳錫(1631-1704)의 문집이다. 신봉석은 호가 自足齋, 자가 錫予이다. '自足'이라 호를 지은 뜻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다. 또한 이 때의 '자족'은 簞食瓢飲에 만족했던 顏淵의 자족이다. 신봉석은 그 뜻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을 썼다. 본 책은 7대손 亨植, 8대손 龍變 등이 편집,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洪承穆(신유년), 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立仁, 龍變, 亨植, 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여 수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은 거생활 중 계절에 따라 변화가는 주변의 자연 경물을 읊은 시가 많다. <閒居卽事>, <幽居疊詠>, <立春>, <喜雨>, <秋興>, <重陽>, <除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學問>, <流頭日示兒曹>, <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霜菊>, <自警>, 병자호란 당시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悲憤吟二首>, <偶歎>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2에는 疏 2편, <自足說> 1편, 書와 제문이 각 1편씩 있다. 1677년(숙종 3)에 올린 <陳五弊疏>는 賦斂·軍役·窮民益困·嶺南偏苦·用人偏重 등 당시 정치 상황의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언한 것으로 그 뜻이 깊고 간절하여 임금의 비답을 들은 바 있다.[特蒙優批, 批語亦甚眷眷] 권3은 부록으로 行錄, 行狀, 묘갈명,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족재선생문집(自足齋先生文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신봉석(申鳳錫)의 시문집으로,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1919년 9대손 신용섭(申龍變)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洪承穆(洪承穆)·오명근(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신입인(申立仁)·신용섭·신형식(申亨植)·신도(申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제문 각 1편, 권3에 부록으로 行錄·行狀·묘갈명·서가장후(書家狀後)·자족재기(自足齋記)·서자족설후(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유려한 운치로 실사적인 묘사시가 대부분이다. 소의 <진오폐소(陳五弊疏)>는 부렴(賦斂)·군역(軍役)·궁민익곤(窮民益困)·영남편고(嶺南偏苦)·용인편중(用人偏重) 등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달하고 있으며, 서의 <답용궁수조면서(答龍宮望趙

沔書)는 용궁현감이 정치적인 자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내용이다.

17세기 학자 申鳳錫(1631~1704)의 문집이다. 신봉석은 호가 自足齋, 자가 錫予이다. '自足'이라 호를 지은 뜻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다. 또한 이 때의 '자족'은 簞食瓢飲에 만족했던 顏淵의 자족이다. 신봉석은 그 뜻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을 썼다.본 책은 7대손 亨植, 8대손 龍燮 등이 편집,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洪承穆(신유년), 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立仁, 龍燮, 亨植, 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여 수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은 거생활 중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주변의 자연 경물을 읊은 시가 많다. <閒居卽事>, <幽居疊詠>, <立春>, <喜雨>, <秋興>, <重陽>, <除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學問>, <流頭日示兒曹>, <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霜菊>, <自警>, 병자호란 당시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悲憤吟二首>, <偶歎>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2에는 疏 2편, <自足說> 1편, 書와 제문이 각 1편씩 있다. 1677년(숙종 3)에 올린 <陳五弊疏>는 賦斂·軍役·窮民益困·嶺南偏苦·用人偏重 등 당시 정치 상황의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언한 것으로 그 뜻이 깊고 간절하여 임금의 비답을 들은 바 있다.[特蒙優批, 批語亦甚眷眷] 권3은 부록으로 行錄, 行狀, 묘갈명,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노경희)

문집개요

문집명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18C)
간략서지	自足齋 申鳳錫의 문집. 3 권 1 책.<古 3428-790>
간략해제	집안에서 오래 동안 보관되어 오던 유문을 7 세손 佑植과 8 세손 龍燮 등이 중심이 되어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간행 시기는 佑植과 龍燮의 발문이 작성되는 1919 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宋奎憲과 申立仁 등이 지은 또 다른 발문의 작성 시점이 각각 1920 년과 1922 년인 것으로 보아, 1919 년 무렵에 간행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가 일부 원고가 새로이 추가되어 1922 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自足齋遺集}은 모두 3 권 1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1 에 詩 120 수, 권 2 에 疏 2 편, 書·祭文 각 1 편, 권 3 은 附錄으로 行錄, 行狀, 墓碣銘,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詩에는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거나 은거 생활 중의 심정을 읊은 것들이 많고, 선비의 곧은 기상을 노래하거나 병자호란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한 시들도 몇 수 있다. 上疏에서는 당시 영남지역에서 겪고 있던 賦斂·軍役·窮民益困·嶺南偏苦·用人偏重 등의 고충에 대한 시정과, 영남 지역에서도 大同法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구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自足齋遺集} <한 古 朝 46-가 644>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 <古 3428-790>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저자소개

편저자 신봉석 (申鳳錫)

저자개요 1631~1704 (인조 9~숙종 30)字: 錫予, 號: 自足齋, 本貫: 鵝州, 父: 堅, 母: 平山 申氏 孝誠의 女

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랐다. 7살 때 부친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너무 이르다 하여 허락하지 않자, 조용히 史書를 끼고 나가 수학하였다. 13세 때 부친의 명으로 魚梁에 나갔다가 단지 잉어 한 마리만을 가지고 옴에 부친이 이를 힐책하자, 차마 고기들을 모두 다 가져올 수가 없었노라고 대답하여 주위 사람들이 그의 덕성에 감복하였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밤낮으로 한 걸 같이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1655(효종 6)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는데, 관학 유생들이 모두 三淸洞에 놀러나갔으나 혼자서 숙소에 남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차에, 마침 국왕이 성균관에 시종을 보내 공부하는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신봉석과 호남 유생 한 사람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저자내용 가상히 여겨 글제를 내고 이에 응답하자 문방구를 하사하였다. 1672년(현종 13) 부친이 운명함에 禮制에 따라 정성껏 상을 치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 또한 병으로 운명하여 부친의 장례 때와 같이 예법에 맞춰 정성껏 상을 치렀다. 형제들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술선수범하여 척박한 땅과 허약한 노비를 취하였고, 자녀 가운데 의복을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차려입는 사람이 있으면 검소함을 숭상하는 가풍을 일러주었다. 1677년(숙종 3) 賦斂. 軍役. 가난한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는 고충. 영남인들의 편중된 부담. 인재등용 등을 주제로 시폐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고, 후에 다시 영남지역에 大同法의 시행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려 했으나 시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704년(숙종 30) 향년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내용개요

내용제목	自足齋遺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古 3428-790
------	------------	------	------------

권수

권제목: 自足齋遺集序 (1)

1921. {自足齋遺集}에 대한 서문으로 모두 2 편이다. 洪承穆(1847~?)의 서문에는, 신봉석이 훌륭한 재주와 인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초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효종 때 제술로 문방구를 하사받은 일과, 현종 때 군역과 민간의 폐단에 대해 상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자의 7세손 佑植이 간곡히 서문을 요청하여 뿌리치지 못하고 응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吳明根의 서문에는, 저자의 自足齋라는 호는 外物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하는 정도의 自足이 아니라, 顏子. 子房. 原憲. 陶翁. 董生 등과 같은 성현군자들이 추구한 自足에 그 지향이 있다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8세손 龍變의 청을 받아 서문을 짓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

권제

권제목: 卷一

詩湖上構小齋扁以自足因題短律自失, 閒居卽事, 池魚無水, 次松軒任兄-世綱-蝙蝠韻, 有懷夢不成, 喜雨, 東閣奉和安侯-應昌-韻, 覺堂與安侯子舍同遊, 除夜, 西行道中, 歸家, 立春, 風雨, 偶吟, 得酒友, 流頭日示兒曹, 惜別, 洪侯-聖龜-枉訪曉話-二首, 愛蓮堂奉洪侯共賦-二首, 渡還-二首, 自警, 舜蹠, 新基感懷, 泥兮烈女禹未眞-泥兮玉山舊名, 書贈申弼星兼以自警, 與徐萬里楊萬春對酒論襟-戊午在京學館時, 登山, 九日湖上, 齊日親忌,

遊金城山, 李侯副學-堂揆-邀見論文, 幽居謾詠, 西郊路中, 汲水滋菊, 學問, 先君忌日, 留京館偶題-太學館, 南遊鳳凰臺, 述懷, 諸益足而慰之或言晚成或言莫怨復用前韻反之, 校前夜話, 觀物有感, 旅夜, 謾詠, 奉和尹侯-誠教-宴集韻, 清宵吟, 同年五客會, 送下第人, 鴈, 東風, 召文塔-二首, 白雪, 臘雷, 林亭-二首, 對階花, 次任松軒幽居韻, 送客, 得友人書, 己巳元朝, 夢見亡室執女工, 門前雙槐, 趙侯-沔-賑民後讌客求和, 附元韻, 送別趙侯子舍, 望北亭設藍田規例, 叔父新居謹次壁上韻, 次趙進士-光奎-畫屏韻, 贈別趙進士, 癸酉九月湖西伯洪晚退堂-萬朝-遊俗離山有詩求和-二首, 次進士再從姪聾瘖-德涵-郊行韻, 舍弟來寓所, 奉贈洪判書晚退堂赴使燕京, 觀禾, 趙侯遞赴龍宮時贈余一絕曰可惜衰年別臨分各白頭新湖從此隔夜月自春秋余演一字奉呈, 侯赴龍宮扇題一絕寄余曰逢君情最密臨岐各傷神今古分離處剛腸復幾人又演而奉呈, 秋興, 示兒輩-三首, 水淨寺, 南川送客, 重陽, 風詠亭, 家兒來, 夜向山寺, 旅懷, 憶弟, 碧溪, 丁丑元朝往蟻谷省墓, 追祭外舅金公-鏡-公以去丁丑元月初三日戰亡, 自東都還, 偶歎, 霜菊, 燈下, 次聞韶樓重修韻, 輓黃侯-應-三首, 輓任松軒-三首, 贈別同心子, 書懷, 驟雨, 臘月霧雨, 竹下移桅, 牡丹, 火田, 聞西報, 悲憤吟-二首, 齋居卽事, 乘輿上高樓, 觀剪燈新話, 悼同庚友人, 初春

권제	권제목:卷二
<p>陳五弊疏- 顯宗丁巳正月十一日 (1)</p>	<p>1677. 민간의 폐단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논하는 5 조목의 上疏이다. ① 賦斂의 폐단에 대한 내용으로, 임진왜란 이래 收稅에 법도를 잃은데다가 근래에는 吏胥輩들의 농간까지 겹쳐 그 피해가 더욱 심하므로, 祖宗의 什一之制를 法삼고 징수 물품 목록을 戶曹 및 列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고 농간을 막도록 할 것. ② 軍役의 폐단에 대한 내용으로, 軍布를 濫徵하는 폐단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23 세~60 세를 正兵의 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아이와 노인들에게는 軍포를 부과하지 말 것. ③ 窮民이 더욱 곤궁해지는 폐단에 대한 지적으로, 권세에 가탁하여 힘없는 사람들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는 자들이 있는데, 임금께서 친히 民情을 살피고 下情이 상달되게 하여 원망을 없앨 것. ④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고층에 대한 지적으로, 築城과 倭館 운영, 그리고 각종 토목 사업으로 영남인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므로 租稅를 반으로 건감시켜 부담을 줄여줄 것. ⑤ 편파적인 用人에 대한 지적으로, 지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먼저 출신 지역을 살피고 재주는 나중에 고려하고 있는데, 재주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재를 선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p>
<p>擬請嶺南行京大同疏 (5)</p>	<p>영남에서도 대동법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이다. 근래 영남지역에서는 부세에 일정한 규례가 적용되지 않아 각 군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또 농간하는 관리와 牟利하는 商賈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동법을 시행하여 民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유독 영남에서만 대동법이 시행되지 있지 않아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남에는 서울로 통하는 수로가 없어 漕運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또 흉년에 당해 갑자기 법을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道臣이 대동법 시행을 반대하는 狀啓를 올렸으나, 漕運 문제는 대동미를 倭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로 轉用하면 해결할 수 있고, 흉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는 백성을 살리는 것이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이라는 점에서</p>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영남인 중에 대동법의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武斷적인 土豪와 受賂하는 관리, 防納으로 모리하는 商賈 및 大畵의 부세를 경시하는 사람들뿐이므로, 원컨대 道臣으로 하여금 속히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여 영남인들 또한 호서. 호남민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은택을 입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自足說 (9)	自足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글이다. 自足の 道는 멀거나 고원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錦衣玉食과 高臺廣室, 그리고 千駟萬鍾의 호사를 누릴지라도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이고, 布衣藿食과 瓮牖繩樞, 그리고 一簞一瓢의 옹색한 형편에서도 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자신에게서 족함을 찾고 外物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마땅히 자신에게서 족함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答龍宮倅趙沔書 (11)	龍宮 수령 趙沔에게 보낸 답장이다. 안부를 전한 뒤, 지난 번 편지에 자신을 龔黃(龔遂와 黃霸)의 재주와 韓柳(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에 비견한 것이 실정을 벗어나 비웃음을 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이다.
祭亡室宜人安東金氏文 (12)	부인 김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부인 김씨는 胡亂 당시 순절한 金鏡의 딸로서, 본인에게 시집와 30년간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가난한 살림에 대해 불평한 일이 없으며, 4남 4녀를 각기 그 재주에 따라 가르치고 모두 혼례를 치러 자손 또한 번성하였으니 婦人의 事業으로서는 매우 성공했다며 그녀의 일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남편인 자신이 아내의 내조에 만분의 일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다면서, 외방 유학 시절 짧게는 몇 달을, 길어도 해를 겨우 넘기는 정도로 자주 고향에 들락거리자 부인은 君子の 학문이 벌써 완성된 것이냐며 勉學을 독려하였고,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는 인편을 통해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할 것을 당부했으며, 擧業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흔쾌히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이런 부인의 죽음 앞에 너무 슬프면서도 부끄럽다고 적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三 附錄
行錄 (1)	동생 申周錫이 지은 行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자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일, 인정 때문에 魚梁에서 잉어 한 마리만을 취한 일, 부친의 병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일, 성균관에서 유학하며 효종으로부터 문방구를 하사받은 일,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 한 일, 分財 시 척박한 땅과 허약한 노비를 취한 일, 族叔이자 스승인 申在의 상을 당하여 3년간 心喪 한 일, 영남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일 등을 주요한 일화로 서술하고 있다.
行狀 (4)	1919. 鄭奭采가 지은 행장이다. 申周錫이 지은 行錄과 거의 비슷하다. 저자의 8 세손 龍燮의 부탁으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행장을 짓게 되었다며 작성경위를 밝히고 있다.
墓碣銘-并序 (7)	1729. 進士 李秀恭이 지은 묘갈명이다.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며 사물을 널리 사랑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했다'는 말로 저자의 일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墓誌銘-并序 (9)	1919. 洪鍾榮이 지은 묘지명이다. 申周錫의 行錄을 따라 저자의 일생을 정리한 뒤,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가졌음에도 평생을 포의로 살아간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고 있다.
書家長後 (12)	1730(?). 宗後生 天杰이 저자의 家狀에 대한 소감을 적은 발문이다. 저자의 호심과 우애는 세인들로 하여금 귀감을 삼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저자의 조카인 宗人 泌甫로부터 부탁을 받아 발문을 쓰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自足齋記 (12)	宗後人 申觀朝가 지은 自足齋에 대한 記文이다. 저자가 '自足の 道는 方寸之間 있는 것으로 멀지도 고원하지도 않다'고 한 말을 가리키며, 이것이 이른바 朱子の '천리를 밝히고 인욕을 제거한다'(明天理 祛人慾)는 말과 같은 의미라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관직이 없는 포의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書自足說後 (14)	1920. 宋奎憲이 저자의 自足說에 대한 감상을 적은 글이다. 시골에서 포의로 일생을 마감했지만 自足하며 조금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저자의 삶을 기리면서, 선생이야말로 진정으로 樂天知命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저자의 후손 佑植의 요청으로 발문을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書遺集後 (14)	1922. 宗後生 立仁이 지은 跋文이다. 自足の 道를 즐긴 저자가 자신의 遺文이 세상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의 덕을 세상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의 玄孫 翼韶의 부탁으로 발문을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識跋 (16)	龍燮(1919). 亨植 燾 등이 지은 跋文이다. 저자의 훌륭한 저술이 많았으나 전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散逸되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송응섭)